

첫 투표하는 대학생·이주여성

“세상 바꿀 소중한 한표” “첫 권리행사 꼭 해야죠”

조선대 새내기 김나래 씨



“젊은층들은 투표도 하지 않으면서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이 많던데 이러한 정치 문화를 바꾸고 싶다면 대학생들이 투표장에 나가 소중한 한표를 던져야 합니다.”

올해 조선대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한 새내기 김나래(여·19·

광주시 동구 지산동)씨에게 18대 총선은 생애 첫 선거다. 처음인 만큼 가치있게 한 표를 행사하고 싶다는 김씨는 “무엇보다 한 학기가 멀다고 치수는 등록금부터 낮춰줄 수 있는 국회의원 뽑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대학교 인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 매일 만나는 고객들을 통해 갈수록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어서.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실정은 국회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만큼 발로 뛰는 마당쇠 같은 분이 되셨으면 해요.” 대학 내에서 학생들끼리 총선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학생들이 이념과 정치보다는 취업과 토익점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탓이다. 김씨는 “술

자리에 가더라도 정치 이야기를 꺼내면 왠지 왕따 당할 것 같은 분위기”라며 “선배, 친구들과 정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후보를 검토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어 아쉽다”고 털어놓았다. 김씨는 또 “첫 선거이니만큼 누구를 뽑아야 할지 무척 고민되고 떨린다”며 “내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신중한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필리핀 출신 멜리나 세단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필리핀에서 선거날 투표하지 않고 놀러가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2002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 멜리나 세단(여·29·

광주시 북구 건국동)씨에게 이번 4·9총선은 한국에서의 첫 투표다. 그녀에게 선거란 ‘꼭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깊게 박혀있다. 필리핀에서도 두번의 투표를 했던 그녀는 새로운 조국, 한국에서의 투표는 의무보다는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일부 주민들과 주변 한국 친구들이 투표 대신 여행을 가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멜리나씨는 “한국 사람들은 말로

는 정치예기를 많이 하는 데 막상 행동을 통해 정치를 바꾸는 데는 인색하다”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처음으로 하는 선거이니 만큼 후보들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멜리나의 관심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주 여성 관련 정책. 결혼 이후 6년여가 지나면서 이주 여성에 대한 편견은 많이 사라졌지만 정책은 아직도 멀어지는 것이다.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이 교육 등 대책이 시급합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진 후보가 국회의원이 당선됐으면 합니다.” 멜리나씨는 “단일민족에서 다문화 민족으로 한국 사회가 바뀌고 있는 만큼 정치인들도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필상기자 kps@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해남 후보에 돈받은 60대 구속

4·9총선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통합민주당 민화식 후보의 금품살포 사건을 수사중인 해남경찰은 8일 이번 총선과 관련, 금품을 받은 박모(63)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19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진도와 완도에서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이 뿌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100여만원

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최근 민 후보 측에서 300여만원을 받았다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한 이모씨를 상대로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민화식 후보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갖고 “금품 살포는 사실무근이며 박씨와는 얼굴을 본 적이 있을 뿐”이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해남=박진표 기자lucky@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최대 30일 유치장 신세

올해 6월부터는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원의 감치명령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신세를 져야하고 신용불량자도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질서위

반행규제법이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개정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 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정보 제공, 법원의 감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과태료를 60개월 체납할 경우 최대 77%의 증가금리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산림청장의 ‘운주사 배우기’

숲가꾸기·산불 진화 현장 토론 벤치마킹

산불 방제 최고 책임자인 하영제 산림청장이 9일 화산 운주사를 찾았다. 하 청장이 투표일인 이날 운주사까지 오는 이유는 뭘까. 간단히 말해 운주사를 배우기 위해서다. 하 청장이 운주사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뽑은 것은 지난 6일 발생한 운주사 인근 천불산 산불 때문이다. 운주사는 이날 산불(피해면적 20ha)로 대응전을 비롯한 운주사 9층 석탑(보물 796호), 석조 불감(보물 797호), 원형 다층 석탑(보물 798호) 등 소중한 문화유산을 잃을 뻔했다. 천불산 불길의 사할 2~3m 근처까지 번지면서 운주사 전체가 불타버릴 위험에 처했다. ‘제2의 낙산사 사태’가 재연되는 것

님들의 준비자세도 돋보였다. 스님들은 불이 사할 인근까지 번지는 긴박한 상황속에서도 평소 훈련처럼 침착한 진화작업을 폈다. 하 청장도 바로 이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하 청장은 이날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화재 당시 상황, 진화작업 방법, 숲 가꾸기 사업의 의미 등을 놓고 사할 관계자 등과 현장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화산 운주사 인근 산불을 계기로 하 청장이 ‘숲가꾸기’ 사업이 확산 등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산불로부터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켜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인·면·수·심 외할아버지

외손녀 성추행·폭행

광주광산경찰은 8일 외손녀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박모(57)씨를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30분께 자신의 딸(33) 집인 광주시 광산구 모 아파트 거실에서 외손녀 A(9)양을 성추행하고, 이에 반항하는 A양의 얼굴을 때려 잔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집을 봐달라”는 딸의 부탁을 받고, 딸 집에 머무르면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외손녀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 같은 사실을 A양에게 전해들은 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필상기자 kps@kwangju.co.kr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7478) 김장동



Advertisement for KCC (주) 금복시스템, featuring services like individual mortgages and apartment balconies.

Advertisement for a car wash and detailing service, listing various car models and their pr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 조이트레블, listing various properties with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 property in Daegu, listing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properties in Gwangju, listing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